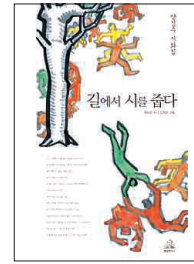


詩와 그림의 만남

양성우 새 시화집 '길에서 시를 읊다'

서양화가 강연균 수채화 21점 곁들여



시집 '겨울공화국'으로 잘 알려진 양성우(64·시진 왼쪽)씨와 서양화가 강연균(오른쪽)씨의 50여년 가까운 우정이 시화집으로 묶여 출간됐다.

양성우 시인이 '길에서 시를 읊다'를 펴냈다. 이 시집에는 시인과 조선훈대 부속고등학교 동창생인 강연균씨의 수채화 21점이 곁들여져 있다. 양 시인이 강씨에게 그림을 부탁해 빛을 본 시화집은 시와 그림이 두 사람의 오랜 우정처럼 씨실과 날실로 짜여있다.

양 시인은 중앙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1975년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자작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했다가 관련된 뒤 지난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복직 권고 결정을 받아냈지만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양씨는 "사회적인 활동 때문에 현

실 참여적인 시를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내 시의 기초는 서정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시집의 주제도 '사랑'과 '마음'이다. "오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내 안에 넘치도록 가득 찬 너/내가 있으므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내가 네 안으로 모조리 부서지고/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구나"("오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부분) 그런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화운동에 함께 뛰어든 이들이

점점 초심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담은 작품들도 눈에 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린 청와대 앞길을 걷는다/뜨거운 담을 따라 나란히 선 큰 나무들이 읊새너스럽다/웬일인지 중심에 선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고, 가우는 나래에 이미 책을 읽고 글을 쓰는/사람들까지도 그 넋을 팔았느냐? (중략) 전혀 터무니없이 옳지 않은 것들 앞에서/목숨을 걸고 맞서던 젊은 옛사람들이 그림이다."("청와대 앞 길에서" 부분)

양 시인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힘은 내가 넘어질 때 애써 붙들어주고 쓰다듬어주는 커다란 힘이 됐다"며 "그 이렇듯 생각해도 가슴 뭉클한 눈물겨운 마음의 힘을 시집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랜덤하우스·8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52회째 맞는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올해로 52회째를 맞는 호남예술제는 오랜 기간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전남일보사가 지난 1956년 처음 행사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참여인원은 53만여명에 이른다. 특히

호남예술제는 현재 국내 예술계 전문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상급 예술가와 지도자를 배출한 산실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오는 23일 막을 여는 제52회 호남예술제를 앞두고 호남예술제를 거처간 쟁쟁한 면면들을 소개한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음악부분의 지도자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남윤(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수(경희대), 김연교(호신대), 서영화·김해경(조선대), 김애령(목포대), 강숙자·정연애(전남대), 박미애(광주대) 조수현(광신대)씨 등으로 전국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립교향악단과 '한국을 빛낸 젊은 영웅' 연주회를 연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20)씨는 지난 1996년 전주 효문초 3학년때 바이올린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며 호남예술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최연소 입상(3위·2005), 제9회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3위(2005)를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르치고 있으며 서차영(세종대), 김화국(원광대), 김화례(경희대), 신정희(경성대), 문영(국민대)씨 등도 호남예술제와 인연을 맺고 있다. 초·중·고 시절 최고상을 받았던 전은선(32)씨는 유니버설 발레단을 거쳐 독일 라이프치히 발레단에서 활동했으며 김이정·김하선씨는 국립발레단원으로 활동중이다.

그밖에 미술의 강연균·최쌍중·배동환·최영훈, 문학의 양성우·국효훈·고재중·곽재구, 국악의 박종선·선영숙·문명

원린 제7회 이슬람 페트렐라 국제콩쿠르에서 1등상과 특별상인 모차르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최근 성남시립교향악단과 '한국을 빛낸 젊은 영웅' 연주회를 연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20)씨는 지난 1996년 전주 효문초 3학년때 바이올린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며 호남예술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최연소 입상(3위·2005), 제9회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3위(2005)를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56년 이래 53만여명 참가 정통예술제 국내·외 정상급 예술가·지도자의 산실 임호열·김아름·신현수 등 신예들 두각



김남윤, 정용선, 김선희, 신현수

한 바 있는 정씨는 오는 5월 창단 연주회를 열 예정인 재독코리아인포니오케스트라단장으로 활동중이며 오는 7월에는 서울과 대전·광주에서 독창회를 열 계획이다.

또 연속으로 초·중·고 최고상을 휩쓸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양세미(32)씨는 호주권즈랜드국립음악원, 미국신시내티 음대를 거쳐 현재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서 등도 눈에 띈다. 한편 음악, 무용, 국악, 작문, 미술, 논술 등 6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치는 제52회 호남예술제는 오는 23일 광주학생문화회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참가 접수 마감은 12일까지다. 문의 062-220-0541.

최근에는 젊은 신예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지난 1995년 최고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임호열(21)씨는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제21회 에피날국제콩쿠르에서 1등상과 프랑스 음악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무용 부분의 면면도 화려하다. 조선대 무용과의 경우 임지형, 박준희, 김미숙 교수가 모두 호남예술제 출신이며 전·현직 광주무용협회장인 정혜신, 정혜경씨, 전·현직 광주시립무용단장인 박경숙, 이영애씨 등도 모두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 가로의 꿈을 키웠다.

또 초·중·고 재학 당시 최고상을 모두 휩쓸었던 김선희씨는 미국과 러시아 유학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들을

또 동신여중에 재학중이던 지난 1996년 최고상을 수상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름(25)씨 역시 지난달 알바니아에서

자서 등도 눈에 띈다. 한편 음악, 무용, 국악, 작문, 미술, 논술 등 6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치는 제52회 호남예술제는 오는 23일 광주학생문화회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참가 접수 마감은 12일까지다. 문의 062-220-0541.

자서 등도 눈에 띈다. 한편 음악, 무용, 국악, 작문, 미술, 논술 등 6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치는 제52회 호남예술제는 오는 23일 광주학생문화회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참가 접수 마감은 12일까지다. 문의 062-220-0541.

21회 광주연극제 폐막 극단 청춘 '피고지고 피고지고' 최우수상

"배우 연기 좋았지만 연출 아쉬워"

8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21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청춘의 '피고지고 피고지고' (연출 이형원)가 최우수 작품상과 무대예술상을 수상, 2관왕을 차지했다.

제에서 열리는 제25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었다. 연출상은 '머슴새'를 연출한 푸른연극마을의 오성환씨가 받았으며 연기상은 최현진(진달래 피네), 윤미란(극단 DIC)씨가 수상했다.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열정적인 관객들과 좋은 배우들이 어우러져 광주의 연극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단 알·아리의 '여우누이', 푸른연극마을의 '머슴새', 극단 진달래 피네의 '우타라 두타라' 극단 DIC의 '바두비 일가'와 경연한 벌인 극단 청춘은 무대 조명과 음향 등을 보완하는 등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경남 거

제에서 열리는 제25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었다. 연출상은 '머슴새'를 연출한 푸른연극마을의 오성환씨가 받았으며 연기상은 최현진(진달래 피네), 윤미란(극단 DIC)씨가 수상했다.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열정적인 관객들과 좋은 배우들이 어우러져 광주의 연극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음악회 13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립합창단의 '영상과 함께 하는 해설 음악회'가 13일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두차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영화음악, 뮤지컬 주제곡 등을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이명진씨의 해설로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가곡 '진달래꽃' '보리밭' '꽃밭에서'를 비롯, 영화 '타짜니

에서 아침을' 중 'Moon river', 뮤지컬 '명성황후' 중 '나 가거든',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등이다.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상업용건물
토지매매
골프연습장 부지

새하늘과새땅공인중개사
☎ 430-8118
월수의 2천만원 정도라면 12억5천정도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건물매매
실버타운용 건물 최적지
(대형 원룸 B/D 가능)
5만평 공원 및 노인 병원 옆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상가건물 매매
전원주택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 광주지도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미 기록된 부분

토우드공인중개사
☎062)384-1995
토지
상가·건물

다우공인중개사
☎(대)523-8114
오봉리 전원주택지
쌍대리 전원주택지

법원경매
지지경매컨설팅(주)
현장조사, 권리분석, 수익분석, 입찰상정, 대출안내, 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확실한 재테크